

‘지지부진’ 완도항 개발

여객선 터미널 신축, 보상문제로 **중단**
 재해취약지구 보강, 양식 피해 민원에 **중단**
 해경경비함정 부두, 어민선박 피항 대책 없어 **중단**

국제무역항구인 완도항 개발공사가 일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3개 회사가 전남 도비 800여억을 들여 3개 회사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도항 개발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우선, 250억여원을 들여 재건축 중인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가 보상문제가 발생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다.

또 태풍을 막기 위한 완도항 최남단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공사비 108억원)도 어민 민원이 발생해 공사 현상이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계획이었던 올 연말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공사는 어민들이 바다 조류 영향으로 전

북 등 바다양식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 공사가 중지됐다.

해경경비함정 전용부두 건설공사(공사비 430억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18년 완공 목표인 이 전용부두는 그동안 어민들이 소형선박이 크고 작은 태풍 등이 불면 피항부두항으로 썼다. 하지만 이곳에 해경 전용부두가 건설되면서 어민 선박 200여척의 피항할 곳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해 공사가 중단됐고, 최근 발주처인 전남도가 공사중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등 민원인과 논의 중이다”면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완도항 전경



가을, 활짝 핀 해바라기

막바지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 31일 해남군 마산면과 산이면을 잇는 간척지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다. 20만㎡ 간척지에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는 농업회사법인(주) 남해에서 식용기름으로 재배하고 있다. <해남군청 제공>

해남, 출산장려정책 탄력 받았다

출산을 전국 1위...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조만간 문 열어

출산을 전국 1위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다양한 출산 정책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크게 늘어난 해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 군의 출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조만간 문을 여는 이 조리원은 496㎡ 규모로 10실의 산모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전용 물리치료실, 편백 찜질방, 피부관리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모든 시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신생아 감염 관리를 위해 에어 샤워 부스,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소독용품 등 대도시 산후조리원 못지 않은 최신 설비로 꾸며졌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소아과 전문의

가 정기적으로 회진하고 종사자 예방 접종, 방역 소독 등을 한다.

이용료는 2주 일정에 154만원으로 민간 조리원보다 20%가량 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국가유공자 등은 이용료 중 70%(107만8000원)를 감면받는다.

산후조리원 예약은 출산 40일 전부터 가능하다. 해남군은 개원 특별 이벤트로 예약자 중 5명을 추첨, 무료 이용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해남군 합계출산율은 2.433으로 전국 최고였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꾸렸다. 군청·주민센터·보건소에서 각기 나눠 맡고 있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데 모았다. 출산장려팀은 아이가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정책을 내놨다.

또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는 미역과 쇠고기 1kg, 아기 내의, 목욕용품 등을 담은 ‘아기사랑택배’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사주·작명에 능통한 지역 노인과 신생아 부모를 연결해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했다. 2009년부터 600여 명의 아기가 이름을 얻었다. 해남군은 2011년부터 양육보조금을 도입했다.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30만원을 주고 그 뒤 아기가 생후 18개월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청각 풍년이요 ~ 태풍·갯벌 피해 없어...채취 한창

‘바다의 사슴뿔’ 완도 청각의 수확이 한창이다. 청각은 사슴뿔처럼 생긴 녹조식물로 바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많이 일지 않는 바위에서 자란다.

완도군은 지난 31일 “국내 청각 양식장의 80%가 밀집한 약산면 당목리 어민들은 요즘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가 청각을 뜯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태풍도 비껴갔고, 갯벌도 없어 풍작이다.

현재 물 청각은 1kg에 1300원, 마른 청각 5000~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완도지역에서는 200여가 가 연간 314t의 청각을 생산, 22억 원의 소득을 올

린다.

한편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의 고서에 청각은 해독작용 및 수종 치료에 좋은 해조류로 소개되고 있다. 비타민C, 칼슘, 인 등이 풍부하고 철분과 섬유질이 많은 청각은 어린이 성장에 좋고 빈혈과 변비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김장 재료로 쓰이지만 냉국, 무채무침 등으로 요리하거나, 효소발효액으로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진도 귀농·귀어인에 창업비 최대 3억원 융자

‘인구 늘리기’ 정착비·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진도군은 인구 늘리기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31일 “최근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진도항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명 진도해양리조트 등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기업·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전원마을·실버타운 및 은퇴자 등 마을 조성 시책 등 총18개의 시책을 수립해 민선 6기 동안 약

6,000여명의 인구를 진도군에 유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진도군 전입시에 출생아 1명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내에서 10년간 보장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신생아 1명당 3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 셋째아이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임신부와 영유아의 각종검사 및 물품 또는 탄생축

하 기념품을 지원해 인구 늘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귀농인에 대해 농지 1000㎡ 이상 경작농업인 및 귀농 5년이하, 20세 이상 ~ 65세 미만,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는 정착자금, 주택수리비, 영농자재, 이사비용 및 현장 실습교육비를 총 48농가에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어인에게 최대 3억원의 창업 지원비를 융자해주고 있으며, 주택신축 구입 사업으로는 귀농인에게 최대 5000만원, 귀어인에게 최대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도군 인구현황은 지난 7월말 현재 1만5848세대에 3만2497명으로 집계됐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파티스 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우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